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사51:12)

2월 7일
 8권 6호

1부 07:00 2부 09:00 3부 11:00

* 여는 찬양	주기도문		
* 예배 선포	인도자		
* 찬송	9장		
* 공동기도문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31장		
기도	정명희 집사	차덕조 집사	최영식 집사
교회소식 새가족환영	인도자		
	시 34:9-15		
성경봉독	이덕수 집사	박정미 집사	이별님 집사
찬양	한경민 집사	윤정민 집사	강신모 집사
오늘의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		
	윤호식 목사		
봉헌	449장		
* 친교	다같이		
* 송영	주님이 뜻하신 일(620장, 2절)		
* 축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01 목회권면

이번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02 주일예배 안내

본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일낮예배, 새벽기도회시 예배당(본당 및 부속 예배실 포함) 10% 이내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역사회와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 성도들 간의 직접적인 만남, 교제, 식사 모임 등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03 새벽예배

2021년부터 새벽예배가 예배당에서 평일(월-금) 05:30, 토요일은 06:00로 진행됩니다. 설 연휴 기간(11~13일)에 새벽예배 있습니다.

04 후원선교

올해부터 4개의 교회와 기관을 추가로 선교 후원합니다.

1. 부산온누리교회
2. 예수마음교회
3. 범양선교회
4. 서울장신대학교

05 3월 특별새벽집회

3월 2일(화)-6일(토)에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 시대에 승리하는 계기가 되는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담당 교역자 : 박순영목사, 상임 부장 : 차덕조집사

06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소식

득남 : 박내성,서윤경 집사(둘째)

- | | | |
|--------------------------|--------------|------------------|
|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 2월 11-13일 | 설날 |
| 2.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을 위하여 | 2월 17일-4월 3일 | 사순절 재의 수요일(2/17) |
|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 2월 21일(주일) | 사순절,첫째주일 |
|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3월 2-6일 | 3월특별새벽집회 |
|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 |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주 일 예 배	1부	07:00	본당 예배실
	2부	09:00	본당 예배실
	3부	11:00	본당 예배실
주일찬양예배	14:00		본당 예배실
수 요 기 도 회	19:00		본당 예배실
새 벽 기 도 회	05:30(월~금)		본당 예배실
	06:00(토)		
탁 아 부	09:00/11:00		비전센터 4층 사랑실
유 치 부	11:00		비전센터 3층 소망실
초 등 부	11:00		비전센터 2층 믿음실
중 고 등 부	09:00		비전센터 5층 은혜실
청 년 부	13:30		비전센터 5층 은혜실

담임목사	윤호식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장중현
전도사	김상태 이원규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반주자	김범준 김슬기 박은영 하은미

- 1 강대권·함선희(네팔)
- 2 김진수·류선희(키르기스스탄)
- 3 엄기정·이해경(요르단)
- 4 오베드로·이신영(브라질)
- 5 대한교회
- 6 비전명성교회
- 7 우이도서부교회
- 8 동리교회
- 9 선공교회
- 10 부산온누리교회
- 11 예수마음교회
- 12 이삭선교회
- 13 명목선교회
- 14 아프리카선교회
- 15 GH선교회
- 16 범양선교회
- 17 서울장신대학교
- 18 C채널

캄보디아 개척교회
 프놈교회·틀라잉뽀아교회
 꼭쌌다오교회·뜨러베엣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주 일 4 부 예 배		
찬 양	예배하는 이에게
기 도	변승지
성 경	요 12:4-15
설 교	박순영 목사
축 도	박순영 목사

**코로나19의 2.5단계로
당분간 수요일예배를 쉽니다.**

2/8(월)	고전 4:16-21
2/9(화)	수 6:1-16
2/10(수)	고전 5:1-8
2/11(목)	단 1:11-21
2/12(금)	단 2:1-13
2/13(토)	에 5:1-14

**줌(zoom)으로
비대면예배를
드립니다.**



■ 대표기도	1부	2부	3부
2/14	조근석	김만수	강예식
2/21	정명희	차덕조	최영식
2/28	한옥희	오현애	정유진

■ 성경봉독	1부	2부	3부
2/14	국경규	진은자	장해중
2/21	이종길	박정욱	박혜미
2/28	홍순자	노미경	구도영

■ **지 난 주 등 록**

■ **2021년도 등록자**
한주동(3남)

제 목: “일어서서 합니다”(열왕기상 19:1-8)

오늘 본문 앞에서는 그야말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850명(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객을 보내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날 죽이는 것보다 자신의 신들의 선지자를 죽인 복수를 제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2절 “... 내가 내일 이 밤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엘리아를 칭파한 존재로 만들고 갑에 질리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여도 너도 별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너도 끝날 것이니까 살 방법이 있으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그 말과 그 할박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능력 있고 수백 명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그 자신의 말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같이 사역하던 사환과 같이 도망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환에게는 너는 여기 있으라 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망가는데 이제 배도 고프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힘 들고 지친 엘리야는 바로 절망과 좌절합니다. ♣4절“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낙낙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하고”이제는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세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무엇인가? 850:1로 저서 힘든 게 아니라 이것어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큰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당찬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을 물리칠 때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냥 싸움했다면 졌을 것입니다. 격투기, 힘으로 싸웠다면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85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짓 신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하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당찬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잡힐 것 같습니다. 영적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영적 침체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가오는 현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믿을 이 좋은 분들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없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놔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주십니다. ♣5절“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서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엘리아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밖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850대 1로 이긴 것은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19:18절 “...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위로를 주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사랑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잠24:16“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엘리야는 지금 침체 돼 있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힘들고 피로해서 잠깐 누울 수 있습니다. 아파서 누울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5절,♣7절에도 일어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려면 살려낸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5장 베데사 연못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냇고자 하나냐?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일어나 걷는 자와 어려움이 되질 축복합니다.

	시 간	장 소	내 용
새 가 족 교 육			
양 육 훈 련			
제 자 훈 련			
구 역 장 교 육			

■ 심일조

강예식 김교민 김귀근 김진옥 남기해 서승우 석부길 석용문 송길선 송의자 신정의 윤호식 이종구 장민자 정의옥 정명희 정영규 정유진 정진숙 조영호 채석진 한옥희 한희자 흥은표 황인순 무 명

■ 감사헌금

강대의 강예식 강인환 권경자 김영춘 김진옥 남기해 모영자 문다윗 문성우 문지연 서승우 송길선 오현애 이덕수 이복순 이원규 이윤창 장명숙 정윤옥 채석진 하상호 한옥희

■ 주정헌금

권영숙 김귀근 김만수 박혜미 변성진 손막동 윤정민 이원규 이종부 이항실 이혜숙 제언희 조근석 최경란 최영식 한영숙 황수훈

■ 선교헌금

강예식 김학수 변성진 이종구 정명희 조옥순 하상호 흥은표

■ 건축헌금

유복순

■ 장학헌금

변성진 송길선 윤선례 이종길 하상호

온라인헌금안내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예) 심일-홍길동, 감사-홍길동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적은 것으로나마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문 구원 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성령이 함께하시어 구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동참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늘 건강히 주님의 테두리 안에 행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교수님과 좋은 교수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국민연금 첫 수령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지난날 한해도 온 가족 건강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공홈의 주님! 속히 아버지 집 옆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서울 삼촌에게 건강과 일강도 주옵시고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둘째 수술 잘되고 순산하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이 언제나 감사합니다. 모든 삶 내 원대로 살게 하옵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나의 자손들 믿음 안에서 잘 이겨 낼 수 있게 하시고 복 받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가족 모두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병원에 가는 일 없게 하옵소서. 공장 준공과 매개체 잘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가족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업무 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녀의 기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문화선교회 / 선교동아리

	축 구	탁 구	바 독	족 구	등 산	볼 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